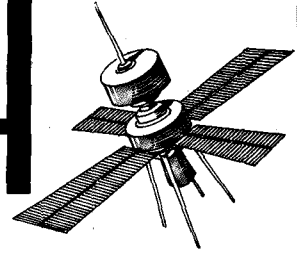


# 이달의

# 인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담 밖에서는 지금

담을 우리 조상들은 별명으로 마당새라고 불렀다.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때에는 오늘과 같은 대규모 양계장도 없었고 농가에서 마당에 놓아 기르는 것이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대표하고 있었다. 집주위에서만 활동하는 마당새의 시야 범위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담 밖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저 주어진 여건속에서 생활할 뿐이다.

그러나 같은 조류(鳥類)이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올라가 온 지구를 한눈에 내려다 보고 있다. 땅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으며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높은 차원에서 찾고 있다.

양계인들이 마당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담 밖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는 전국 소비자 대표들이 모여서 식생활 속의 낭비를 줄이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TV의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인 9시 뉴



스시간에 방영되었는데,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회장 李潤子)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鄭壽昌)가 주체가 되어 앞으로 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리라 한다.

제 1 주제는 「우리 식생활에서본 과다 영양 섭취」(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채범석 교수), 제 2 주제는 「식량 식품 유통단계에서의 낭비」(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부장 권 태완박사), 제 3 주제는 「생활문화 변화와 식생활 개선」(이화여대 가정대 김숙희 교수)이었다.

이날 회의장에는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에서 많은 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우리는 이제 미나가 우리나라 상공인의 대표기관인 상공회의소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날의 분위기는 전반적인 면에서는 아직 걱정을 안해도 되지만, 일부 아파트지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서울대 가정대학조사) 24%가 영양섭취 과다로 비만이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근교 갈비집에서 낭비와 미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국민소득 2천 불을 맞이해서 외국의 잘못된 식관습의 전철을 밟지 말자고 주장하고 덜 먹는 습관을 기르자고 하였다.

보리고개를 걱정하던 우리가 어느새 과잉 섭취와 미식을 걱정하게 되었으며 이제 겨우 닭고기 연간 1인당 3kg 섭취의 수준에서 비만과 식도락을 걱정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외채를 걱정하고 사료자원을 절약하며 소비홍보의 방향도 어떻게 골고루 먹게하느냐를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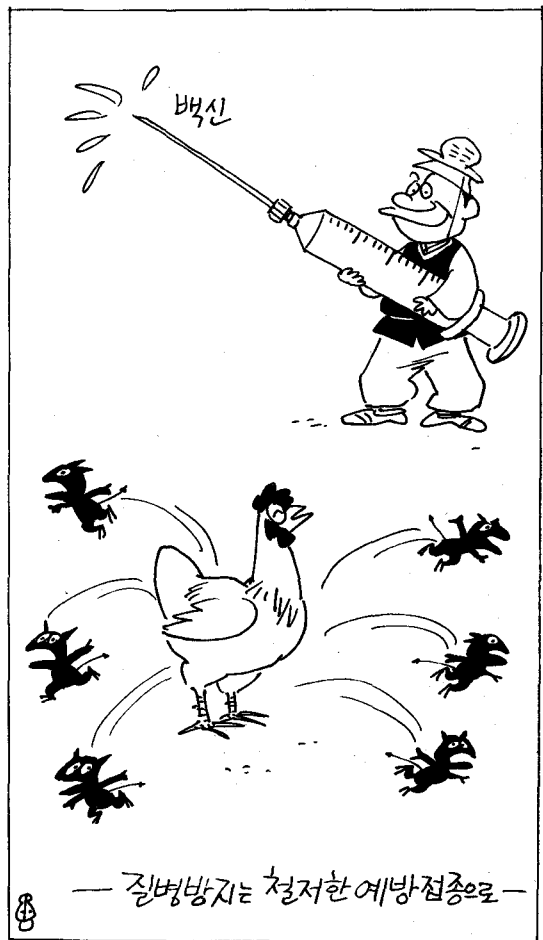
이날 분위기가 수산물을 많이 먹자는 의견이 높았던 것을 볼때 축산업계도 수산물과의 대체관계를 분석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가 마당안에서만 활동하는 동안 담밖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 뉴캐슬 백신을 철저히

닭의 질병 하면 역시 뉴캐슬을 대표적 질병으로 들수 있다. 피해도 크지만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본회가 주관하는 혈청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은 매일 채혈하여 뉴캐슬병을 방어할



주요 예방약 공급

(단위 천수분)

예 방 약 명	83			84			85(계획)
	생산량	공급량	이월량	생산량	공급량	이월량	생산량
뉴캐슬 (생독)	217,102	254,747	61,420	188,091	136,091	52,000	216,000
뉴캐슬 (사독)	21,851	42,442	7,583	38,436	27,636	10,800	37,500
전염성후두기관염	95,937	84,594	27,440	93,690	65,590	28,100	96,000
닭 뇌 척 수 염	1,982	2,443	1,100	3,826	2,433	1,393	6,000

※ 83년 공급량 중에는 82년도 이월량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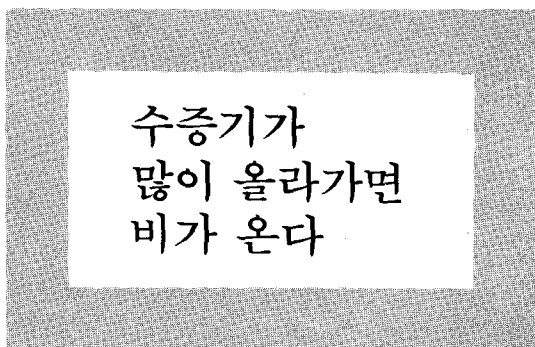
수 있는 수준의 항체역가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통보하여 주므로 비교적 안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농장의 경우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매년 백신 판매량과 다음해 뉴캐슬 발병률과는 비례하는데 84년 뉴캐슬 백신 판매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ND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ND의 경우 소요량의 40% 수준 밖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어 항시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며 백신 사용률을 현재의 배로 높여야 한다(본지 84년 2월호 참조)

뉴캐슬이 만연하기전 미리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하고 접종후에는 혈청검사를 통해서 재확인 하는 과학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혈청검사에 관한 것은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으나 수매비축을 준비한다는 말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선거때 돈이 풀렸다고는 하나 신학기에 입학금·등록금 등으로 돈이 학교로 몰려가서 가게가 압박을 받게 되어 매년 수요가 감퇴되어 왔으며 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도 적잖기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 단체는 식생활 낭비를 줄이자는 운동을 펴고 있고 수산업계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공급을 수산물로 하자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료곡물 수입을 억제하여 외화를 절감하자는 운동을 사료협회가 주관이 되어 전



닭값과 계란값이 구정이 지나고부터 약세로 돌아서더니 이제는 하락폭이 커서 육계의 경우에는 kg당 800원을 밀돌기 시작했다. 정부는 800원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수매비축 한



85 축산물 수급계획

		84실적		85계획	
		1인당	총량	1인당	총량
육류	합계	13.9kg	564,275M/T	14.6kg	602,065M/T
	최고기 (국내산)	2.6	106,581	3.0	122,380
	(수입)		90,032		112,880
	돼지고기	8.4	339,786	8.4	346,580
	닭고기	2.9	117,908	3.2	133,105
우유 (국내산)	20.5	833,504	23.4	965,465	
(수입)		811,061		963,614	
		22,443		1,851	
계란	6.7	271,654	6.9	283,898	
		(4,939백만개)		(5,162)	

국을 순회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축산업계에는 밝은면보다는 밝지않은 면도 상당히 있다.

또 현재는 소값 하락방지를 위해서 수입쇠고기 방출을 중단하고 있으나 무한정 보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격하락의 태풍의 눈으로 잠재하고 있다.

84년도에 그런대로 육계가격을 유지할수 있었던 것은 73년에 비하여 21.3%를 적게 생산했기 때문이었다(배합사료 생산량 기준).

금년에 정부는 84년에 비하여 닭고기는 12.9%(돼지고기소비의 34.7%), 계란은 4.5%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타육류와 대체관계가 큰 닭고기의 수요를 감안하여 생산조절이 필요하다.

1월 육계전기 사료 생산량이 19,273t으로(후기는 26,764t) 이제는 월 2만t의 전기 사료 생산도 위험수위에 육박하게 되었다. 생산량이 늘면 값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석이었는데 얼마가 적정수준이나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하늘에서 건디지 못하고 비가 되어 내려오게 마련이다. 적절한 비는 생물이 자라는데 오히려 필요불가결 하지만 소나기가 와서 홍수의 피해가 있다면 문제이다.

수증기가 홍수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양만 올라가야 하겠는데 그 수준은 축협외 관측 발표나 본지 가격난의 전망난을 통해서 생산자들이 조절해 주기 바란다.

## 농 장 매 매

- 소 재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270번지 국도변
- 대 지 : 약 4,500평
- 계 사 : 총 1,000평(9동), 고상식 채란계 계사
- 연락처 : (Tel.) 682- 1974